



채란양계인대회

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를 삼불시대(三不)라고 한다. 불신(不信) 불화(不和) 불감(不感)을 말한다.

불감이란 나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도무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중 일부 가공품이 수입개방되어도 내가 생산한 계란이나 닭고기가 잘 팔리고 있으면 관심이 없다.

사료곡물 공급에 대한 비합리적인 쿼터제 실시에도 우선 사료구입에 불편이 없거나 남보다 내가 싸게 구입한다는 자위로 관심 밖이다.

전염성 질병도 내농장에만 피해가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실행하는데는 관심이 없다.

소비홍보사업도 값이 떨어지거나 체화될 때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불감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 발전은 정지하고 더 나아가서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희랍의 시인 쿠키데스는 조용한 시민은 가장 나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불감증은 한 사회나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불화의 문제도 심각하다. 생산자와 상인간에, 생산자 사이에도 규모에 따라 대군 소군으로 불화의 연속은 단결을 아무리 외쳐도 그 비례로 심화되어 간다. 불신의 문제는 계열화를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불신상태에서는 업계의 자체 붕괴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

지난 2월 19일 전국의 채란양계업자 대표들이 모여 악덕상인을 규탄하고 서울계란상인연합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불감의 시대에 오죽하면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를 생각하니 그간 생산자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간 상인의 횡포 유형은 대별하여 다음 몇가지로 집약된다.

1. 계란상인연합회를 조직하고 단합하여 상근 직원을 시켜 전화로 상인들에게 계란값을 지시하여 임의로 시세를 조작하고



자율과 창의성 발휘토록

양계산물 가격의 불안은 양계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것이 생산 조절이며 최근에는 정부가 생산조절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축산법에 농림수산부장관이 가축수를 감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 명령에 불복하면 과태료는 물론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번 양돈업에 감축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양계업에도 우선은 중계수입을 제한하고 생산규모를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생산량을 억제하면 된다는 풍조가 우리 업계에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발상이 사료공급을 줄이면 과잉생산이 안될 것이라는 발상까지 하게되고 각종 쿼터제나 등록제 허가제 등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산조절 일변도의 정책이 집행되는 배경에는 축산업하면 축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만을 생각하는 경직된 사고 때문이다.

계절별로 수요의 진폭이 큰 계산물의 경우 가공 유통업의 발전없이 가격안정은 불가능할 뿐더러 공급조절이나 소비조절 기능의 보완없이 생산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용기를 높이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제4위라는 외채에 짓눌려 외화절약 국내자원 활용이라는 명분론 앞에는 운신을 할 수가 없었다.

2. 양계농가에서 계란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가격을 조작하여 대금을 정산(후장기제도)하므로써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며

3. 몇몇 상인들이 몇몇몇일부터 계란값을 얼마에 농가에서 구매하자는 등 미리 계란값을 정하여 농가를 착취하고

4. 계란가격을 싸게 대량 구입하여 쌓아 놓은 후 가격을 올려 제과업소 등에 고가로 납품판매하고 일정기간 농장에서 구매하지 않다가 농장에 계란이 체화되면 다시 값을 떨어뜨려 농장계란을 인수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외에도 채란양계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이 2월 25일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가금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되어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삼불(三不)이 아닌 상호 신뢰·협조와 업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참여의식(주인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과가 오히려 외화낭비가 되어도 명분이 외화 절약이면 실리는 맥을 출 수가 없게 된다.

뒤늦게 결과를 보고 잘못을 깨닫게 되지만 잘못된 양반정신은 물에 빠져서도 죽으면 죽었지 개해 엄은 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복지를 위한 풍요와 부(富)의 비밀은 국민이 원하는 상품을 최소 가격으로 만들어 공급하는데 있다.

그러함에도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이를 막는다면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낭비적이고 생산 저해적인 각종 규제를 완화내지 철폐하고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업체 스스로 창의와 자율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시장경제를 통한 치열한 가격경쟁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가져온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사료곡물 수입량과 국산 원료의 사용을 연계시켜 주고 농가소득이 극대화하도록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도로, 전기, 통신 등 간접자본 투자를 하여주고 위험부담이 따르는 가공 유통분야에 지원하면 된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경제성장의 40~60%가 기술적인 성장에 의한 것으로 두뇌성장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력이 요망된다.

양계산업을 1차산업의 범주로 보고 농가부업소득원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중핵 양계농가에 계사신축, 규모확장, 배합사료 등에 규제를 가하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양계인들의 요망이다.

각종 규제보다는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여 중소규모 양계인들의 소득원을 확보해 주고 협동조합이 배합사료 등 생산자재의 공급은 물론 제품의 가공 유통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길이 빠른 길이다.

양계인의 한 모임에서 제기된 의견을 간추려 보았다.☞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